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사순 제1주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을 시작으로 회개의 시기인 사순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저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매일 미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삶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언제 하느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었던가를 떠올려 보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닥쳐오면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늘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원죄의 시작 또한 하느님 없이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려 했던 결과이지요. 이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신 하느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에 가려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을 뿐, 그것을 견어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굶주리며 떠돌았던 이유도 자신들이 한없이 부족하여 생명이신 하느님께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수많은 교만을 견어내며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는 늘 위기의 연속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련이 늘 하느님만을 찾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은 동시에 유혹을 불러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늘 이민족의 신들의 유혹에 떨어졌듯이, 세상은 하느님 이외에 많은 대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대안들은 결국 더 큰 죄악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단식과 악마의 유혹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식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악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 하느님 없이 그 부족을 채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이 유혹을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완전히 극복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순 시기의 모든 단식과 극기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느끼며 하느님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정표가 되어 줍니다. 하느님을 잊어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스스로 부족한 존재가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며 하느님을 찾는 여정의 시기인 사순 시기를 충실히 보내도록 합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심정현 요한드라살 신부 | 옥포본당 보좌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신명 26,4-10
화 답 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 2 독 서	로마 10,8-13
복 음	루카 4,1-13

교우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편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올해쯤이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연일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니 여전히 일상은 조심스럽고 마음은 더욱 움츠러듭니다. 어서 봄이 찾아와 그간 쫘쫘 얼어붙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보를 통해 안내되었듯 그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금으로 새 교구청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기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아래 남은 일정들도 무사히 마무리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지내왔으나 지난해 가을부터 극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인해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해 온 저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수술 후 제대로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긴 회복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반기 동안의 모든 직무를 최봉원(야고보) 총대리 신부님께 위임합니다. 견진성사를 비롯한 교구의 주요 일정들은 총대리 신부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디 총대리 신부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지금껏 해오셨던 것처럼 하느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굳건히 머물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모르지 않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그저 마음 무겁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십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직무로 돌아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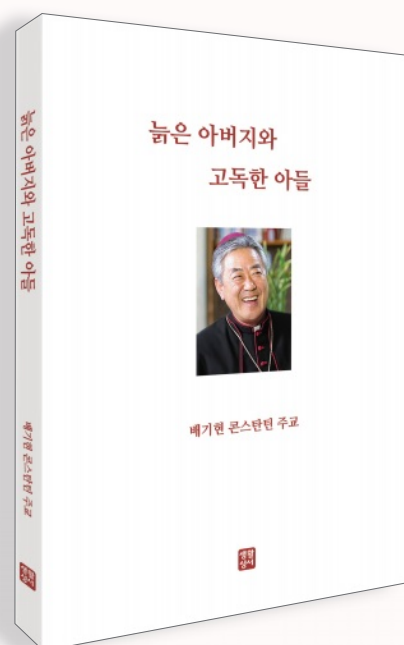
천주교 마산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배기현 주교의 유쾌한 참회록, 자전적 에세이

늙은 아버지와 고독한 아들

『늙은 아버지와 고독한 아들』은 교구장 배기현 주교님께서 교구 총대리로 부임하셨던 2015년, 매주 교구보 <가톨릭마산>에 기고했던 ‘제언’과 주교로서 발표했던 ‘사목교서’와 ‘담화문’ 그리고 삶의 근간이 되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 정달용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데 엮은 책입니다. 배기현 주교님이 썼기에 가능했던 여러 재미난 일화들과 시골 본당에서의 파스한 사목 이야기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영성(靈性spirituality)’임을 몸소 보여줍니다. 또한 주교님만의 담백한 언어로 들려주시는 놀랍도록 진솔한 자기고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신앙적 성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 지은이: 교구장 배기현 주교
- 출판: 생활성서

사랑(1)

우리가 하는 말 중,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많이 쓰이는 단어는 사랑이다. 누구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진다.

가정에서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을 가족에게서 듣고 사용하면서 깨닫는다. 그리고 사회활동 중에는 겨레 사랑, 이웃 사랑, 향토 사랑, 직장 사랑이 강조된다. 특히 군대 생활 안에서는 조국 사랑, 부대 사랑, 전우 사랑, 부하 사랑이 더욱 요구된다. 또 가수들은 사랑을 목놓아 노래하고, 작가들은 작품으로써 사랑을 묘사하며, 예술가들은 사랑 이야기를 최고의 주제로 다룬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큰 종교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애주애인愛主愛人, 불교에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 유교에서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이 중심사상이다. 애주애인과 대자대비와 경천애인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부활 논쟁(마르 12,18-27)을 하고 있을 때, 율법 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대답하셨다(마르 12,30-31 참조).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중심사상은 사랑이며,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사도 바오로는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말까지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며, 또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몸까지 넘겨준다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요란한 징이나 팽과리에 지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으며(1코린 13,1-3 참조), 사랑이 더욱 뛰어난 길이라고(1코린 12,31) 했다.

사도 바오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 문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타르수스Tarsus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희랍의 영재교육英才教育을 받았다. 또 예루살렘에 유학해서는 석학 가말리엘Gamaliel의 문하생門下生이 되었고, 그곳에서 철학과 신학 및 율법 등을 공부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면서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사이파에 속해 활동했다. 아울러 신자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권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러는 중, 다마스쿠스Damascus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9,3-6 참조) 극적으로 회심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獨身으로 살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썼다. 그리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신약성경 중 14권의 서간書簡을 저술하였으며, 67년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위대한 사도로 살았다. 이러한 바오로가 그리스도교의 첫째요 둘째 계명이며 신앙생활 지침이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랑(1코린 13,1-13)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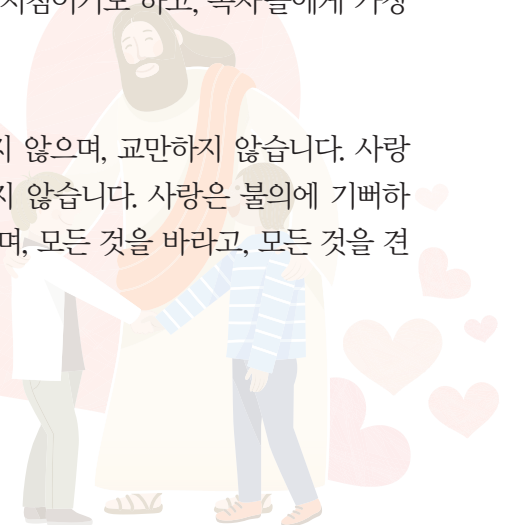
그중에서 1코린 13,4-7의 내용은 이러하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이 내용의 주어主語인 ‘사랑’을 ‘나’로 바꾸어 읽으면 더 뜻이 깊어진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아버지 성 요셉

황광지 가타리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책을 들고 펼쳤을 때 한동안 덮고 싶지 않으면 성공이다. 흥미롭든지 감동적이든지 한방에 혹 와서 닿는 것이 있으면 아주 그만이다. 『아버지 성 요셉』이란 작은 책자를 선물로 받았다. 보낸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며 봉투를 열고 첫 단락의 첫 행을 읽었을 때 탄성을 흘렸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보태주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을 요셉으로 알았지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건 생각지 못한 일이다. ‘하느님이 보태주신다’는 심오한 뜻이 눈길도 마음도 끌었다. 첫 단락의 소재목은 ‘덤’이었는데, 이렇게 매듭짓고 있다. “요셉은 ‘덤’이다. 하느님이 마리아와 예수님 곁에 있게 하신 그 ‘덤’이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에게 의탁하는 모든 이의 삶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덤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십 년 전 남편과 산에 갔다가 그는 죽고 나는 살아왔을 때부터이다. 남은 인생은 덤이라 여기며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 보기로 했다. 그런데 덤을 여기서 성 요셉과 함께 맞닥뜨리다니. 마리아와 예수님 곁에 선 요셉의 덤은 차원이 달랐다. 선량함과 겸손함의 이미지로 차 있던 요셉에 덤이 더해지니 말할 수 없는 전율이 훑고 갔다.

비로소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귀한’ 책의 내용을 살폈다. 요셉 성인에 관한 30가지 묵상은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의 글이다. 그다음에는 성 요셉의 해 프란치스코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가 실려 있다. 이어 안토니오 벨로 주교가 쓴 요셉 성인께 드리는 편지도 실려 있다. 끝에는 여러 가지 요셉 성인께 드리는 기도가 들어 있다. 이 글들을 우리말로 옮긴이는 성염 전 교황대사이다.

에피코코 신부의 짧은 묵상은 나로 하여금 발상의 전환을 하도록 도왔다. 판에 박히지 않은 사유를 통해 요셉에게 다가가 폭넓게 이해하게 했다. 잔잔한데 놀라운 글들이 가슴을 두드렸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교황 교서에서 나는 특히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에 주목했다. 미처 요셉에게서 생각지 못한 ‘창의적 용기’를 보게 되었다.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해 마리아가 해산할 장소를 찾지 못할 때, 외양간을 준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장소로 바꾸었다. 또 절박한 헤로데의 음모를 피해, 한밤중에 일어나 가족을 보듬고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하는 요셉에게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벨로 주교가 요셉 성인에게 쓴 아름다운 긴 편지에는 두 손이 모아졌다. 요셉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세태를 자책하는 글을 따라가며 나는 머리를 조아렸다.

어쩌다 인연이 된 성염 선생이 이 책을 보내왔다. 함양 산골에서 주로 성 아우구스티노 저술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학자이다. 『아버지 성 요셉』을 옮긴 글은 부드럽고 문학의 향기를 담아 영혼이 훈훈해진다. 3월 성 요셉 성월을 맞아 다시 책을 펼쳤다. 서른 개의 묵상 글을 매일 읽으며 아버지 성 요셉에게 다가갔는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루멘회’ 창립총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교구 가톨릭 경제인회가 루멘(Lumen, 담당 사제: 최봉원 야고보 총대리 신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월 12일 교구 청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다. ‘루멘’은 라틴어로 ‘빛’을 의미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수현 바오로 형제(명서동본당)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루멘회 전신인 가톨릭 경제인회는 지난 1983년 7월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2005년 재창립됐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재창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고, 지난 2020년부터 여러 분야의 기업인들 간의 새로운 다짐을 통해 루멘회 창립을 준비해왔다.

옥봉동본당 매괴의 모후 Pr. 2,000차 주회



교구 옥봉동본당(주임: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신부) 모든 은총의 중재자 Cu.(단장: 강용호 마르코) 소속 매괴의 모후 Pr.(단장: 윤정자 헬레네)은 2월 18일 2,000차를 맞이하여 기념 주회를 가졌다. 매괴의 모후 Pr. 단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2,000차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함께 기뻐하였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이재혁 신부도 함께하며 단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기억할 선종 사제
서원열(라파엘) 신부
1999년 3월 7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용백(요한) 신부
2016년 3월 13일

본당 사목 방문

일시: 3월 10일(목)
본당: 경화동/ 중앙동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10일(목)
본당: 남지/ 대산

교구/본당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입학미사

일시: 3월 7일(월) 11:00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교육

일시: 3월 11일(금)
장소: 교구청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3월 13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청년 간부연수

일시: 3월 19일(토) 14:30~20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지구 및 본당 청년회 간부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18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 완치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자(연수 당일 아침,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결과)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수건), 필기구, 미사 준비

신청: 3월 13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채널 '청년부'검색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3월 31일(목)까지

문의: 성경부 055·249·7026, 010·3567·4810

기타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 추지도 성지순례
일시: 3월 12일~15일/ 3월 26일~29일/ 4월 2일~5일/
4월 9일~12일/ 4월 23일~26일/ 5월 5일~8일/ 5월 12일~15일/ 5월 28일~31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3월 17일~19일/ 3월 26일~28일/ 3월 30일~4월 1일/ 4월 4일~6일/ 4월 10일~12일/ 4월 19일~21일/ 4월 24일~26일/ 4월 30일~5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3월 13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청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과정

원서접수: 3월 31일(목)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22년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7.5%

대전교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안내

·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정, 매일 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 청년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3월 27일(주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9

▶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제주성지 순례 3월/ 4월**
3. 21.(월)~24.(목)/ 4. 18.(월)~21.(목)
5. 2.(월)~4.(수)/ 5. 5.(목)~8.(주일)

■ **한국성지 167 완주**
3. 14.(월)~17.(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소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직장맛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 이해하기 ①

마산교구 시노달리타스 위원회

Q. 함께 걷는 여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하여 친교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복음화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Q. ‘시노달리타스’는 왜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사용하나요?

A. ‘Synodalitas’(시노달리타스)는 라틴어 ‘Synodus’(시노두스)에서 유래된 말로써 ‘시노드의 정신과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그리스어 σύν(원, ~함께)+ὁδός(호도스, 길)가 합쳐진 단어로 ‘함께 걷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합의성’이라고 해석되었지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의미의 한계로 인해 원어인 시노달리타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시노드’는 또 무엇인가요?

A. 교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교회의 회의들을 ‘시노드’라고 지칭해 왔으며 세계주교시노드는 교황이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주교들의 자문을 듣는 회의입니다. 2023년 16차 세계주교시노드를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 여정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노드’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걷는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Q. 이번 ‘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곧 ‘시노드’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가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고 시노드 여정을 통해 시노드 교회로 사는 법을 익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복음화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공동질문

-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성령께서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실까요?

“자기 잊음”-예수님의 성령 체험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 마魔가 깐다’는 뜻인 이 말은 어떤 일이든 삼가 조심하여 마음의 균형을 잃지 말도록 당부하는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하느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유혹인지 아닌지 잘 식별하라는 말들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눈에 선명히 보이는 비둘기 형체의 성령, 하늘로부터 귀에 분명하게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참조)는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예증하듯이, 눈으로 귀로 몸으로 성령을 체험하신 예수님의 마음 역시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으셨을지요? 뜨거운 용암 같은 그런 분을 성령께서는 광야로 이끄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를 찬물 속에 집어넣어 담금질하듯...

악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당신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들은 바로 그 말로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의 정체성에 정면 도전을 가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루카 4,3,7,9)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창세 3,4-6).

가정假定, 의심, 왜곡된 정보를 매혹적으로 흘리며 사실과 진실, 진리를 가리고 파괴하는 더러운 영, 악마의 수법은 창세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의 우리들에게나 똑같습니다.

이 간교한 꾀임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당신의 성령 체험이 완전히 자신 안에 인격적으로 육화된 엑스타시(자신 밖에 서 있는 상태)의 절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있어 이제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닌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말씀이 아닌, 아버지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악마에게 응대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말입니다(루카 4,4,8,12).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치명타를 입히는 자기중심이라는 현상, 곧 근본적이고 강력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맞서 당신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께 당신을 온전히 넘겨주시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몰아적인 관계를 훌륭하게 드러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릴 만큼 타자에게 온전히 투신하는 그 사랑, 아버지와 아드님,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그 성삼의 친교에 완전히 빠져드는 복된 자기 잊음의 사순시기 되시도록 기도드립니다.